

이도링 “SKT 컬러링 특허 침해”

SK텔레콤이 특허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무선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인 애드링시스템(대표 박원섭)은 통화연결음 서비스인 SK텔레콤의 “컬러링”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SK텔레콤에 특허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애드링시스템은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대한 자사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애드링시스템은 경고장에서 지난 99년 특허를 출원해 2001년 10월 23일자로 특허를 획득한 유·무선 통신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광고방법이 SK텔레콤의 컬러링 서비스에서 허가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는 교환망 또는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면 이를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호를 음악 등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회사측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통화연결음뿐 아니라 벨소리 대신 광고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드링시스템은 경고장을 발송해 “컬러링”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리는 자료를 제시하고 SK텔레콤에 답변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박원섭 애드링시스템 사장은 “SK텔레콤의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 특허를 이용해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되도록 법정에 가지 않고 SK텔레콤로부터 특허를 인정받기를 희망해 경고장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애드링시스템이 이번에 처음 특허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지금까지

이에 대해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애드링시스템은 우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특허 논의를 진행한 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텔레콤을 상대로도 특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휴대폰 바코드 특허분쟁 장기화 조짐

유시스정보기술이 휴대폰 바코드 인식기술에 관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시큐베이가 고등법원에 항고해 두 업체의 특허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유시스정보기술(구 대화바코드시스템, 대표 유종인)은 시큐베이가 휴대폰 바코드 인식기술에 관해 특허에 준하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자사에 대해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법원이 최근 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큐베이는 LCD 바코드 스캐너 기술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유시스정보기술이 침해했다며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시큐베이는 지난해 11월 휴대폰 창에 바코드를 띄우면 이를 읽어주는 LCD 바코드 스캐너를 개발하고 특허에 준하는 실용신안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본 사건 등록고안은 등록고안 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의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실용신안권을 침해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 확인 등의 심판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기도 전에 당사의 제품에 대한 제조

등을 금지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유시스정보기술측은 시큐베이가 자사의 인증기 “기가스캔” 보급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동안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공공연히 밝혀 자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시큐베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큐베이측은 “이번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유시스정보기술이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실용신안권 무효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소송에서 우리의 실용신안권이 인정되면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엄밀히 유시스정보기술의 승소로 보기 힘들다”이라고 주장했다.

시큐베이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 신청하고,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빠른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특허무효우선심판청구권을 함께 제출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이케, 암웨이 상대 BM특허 소송

인터넷솔루션업체인 쇼테크가 세계적 다단계 유통업체인 암웨이를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쇼테크는 한국암웨이 외에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단계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쇼테크(대표 유석호)는 암웨이를 상대로 자사의 BM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99년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네

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BM특허를 획득했었다.

특허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내면 배송까지 일괄처리해주는 사업모델이다.

유석호 사장은 “특허를 획득한 뒤 온라인 다단계 판매시장을 조사한 결과 규모가 연간 7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암웨이는 올해 예상매출액 1조원 가운데 8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다단계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에 치중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우인의 박준영 변호사는 “일반적인 BM 특허의 로열티가 매출의 3~5%라는 점을 감안하면 쇼테크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연간 3백억~4백억원의 로열티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특허법상 특허보호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7천억원에 이르는 로열티 수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쇼테크측은 뉴스킨 등 다단계판매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따라 4백여개로 추산되는 국내 다단계 업체들도 특허침해에 따른 로열티 지급문제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경제

삼성-LG LCD특허분쟁 조짐

삼성과 LG 간에 LCD(액정표시장치) 특허분쟁이 빚어질 조짐이다.

이는 최근 LCD 특허를 둘러싼 한국- 타이완-

일본간 분쟁이 첨예한 가운데 세계 1, 2위 업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셈이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LG필립스 LCD는 프랑스 CEA사로부터 광시야각 특허 기술의 '서브 라이선스' 권한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CEA는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원천 특허를 다수 보유중인 프랑스 최대의 정부 출연연구소다.

LG가 이번에 획득한 분야는 VA기술 (Vertical Alignment, 수직 배향 기술)로, LCD 시장의 주력제품으로 떠오른 17인치 이상의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서브 라이선스'란 원천 특허 보유인(CEA)으로부터 특허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 받는 지적재산권 활용 전략의 일환.

LG필립스LCD는 CEA와 공동으로 삼성전자와 일본 산요, 타이완의 AU옵트로닉스 등으로부터 로열티를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LG필립스 관계자는 "CEA는 순수 연구소로 특허를 비즈니스화 하는 역량이 부족해 경험이 많은 대기업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서브 라이선스 획득으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삼성전자인데 일단 이들 업체들과 특허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움직임은 자체 기술의 보호에 그쳤던 특허개념이 공격적 로열티 창출로 바뀌는 첫 단추로 인식하면 된다"며 "협상에 따라 얻어질 특허료는 원천기술자인 CEA와 LG가 공동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의 움직임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VA 기술을 원용한 PVA(Patterned Vertical Alig-

nement) 라는 자체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LG와 타협을 시도하되 최악의 경우, 다른 특허를 통해 맞대응 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LG와 삼성전자 등 경쟁업체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LCD업계 전반에 특허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출처 서울경제

시사, '소림사' 상표권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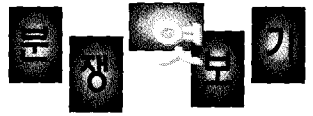
중국 전통무예인 쿵푸의 본산 소림사가 "소림(사)"란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과 상표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인터넷서널헤럴드트리분(IHT)이 보도했다.

IHT에 따르면 소림사는 최근 자동차부터 식음료, 약, 가구 등 광범위한 품목에 무단 도용되고 있는 "소림(사)"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상표를 등록했을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후난샤오린(湖南少林)공업개발"이란 회사를 세웠다.

소림사측은 미국에 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1백17개 상품이 자신들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로펌의 밥 젤린스키 변호사는 "특정상품에 "소림(사)"라는 이름을 붙이면 신비감과 함께 고대 중국에 대한 향수를 일으켜 인기가 높은 것 같다"며 "속세와 거리가 먼 소림사까지 상표권에 신경을 쓰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EMC 맞고소 “서로 특허침해 주장”

컴퓨터 저장장치(스토리지)업계의 패권을 다투는 휴렛패커드(HP)와 EMC가 상대방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맞고소했다.

HP는 저장장치간 데이터전송기술을 비롯한 자사의 특허기술 7가지를 경쟁 업체인 EMC가 ‘시메트릭스’ ‘클라리온’ ‘타임파인더’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EMC를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고소했다. EMC도 질세라 같은 날 매사추세츠지방법원에 자사의 원격 데이터 복사기술을 비롯한 6가지 특허기술을 HP가 무단 사용했다며 맞고소했다. EMC 대변인 마크 프레드릭슨은 HP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소송을 걸었다며 “이는 (HP의) 절망적인 주먹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HP 대변인 마크 스타우스는 “EMC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찌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두 회사가 감성적인 고소전을 벌인 이날 양사 주가는 컴퓨터장비업계평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졌다. 컴퓨터 저장장치업계 전문가인 낸시 머로운은 여러 가지 문제로 EMC와 부딪치고 있는 HP가 EMC를 협상태이 블로 끌어내기 위해 소송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HP 마케팅담당 부사장인 밥 슐츠는 “EMC는 HP뿐만 아니라 HP에 기술을 제공하는 히타치에 대한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후불식 교통카드 “지재권침해” 공방

후불식 교통신용카드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국민카드와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사이에 지적재산권 침해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는 국민카드가 자사 고유기술인 교통카드시스템 키(key)값을 도용해 지금까지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씨엔씨측은 지난 97년 국민카드에서 제휴사업팀장으로 재직하던 조모씨가 지난달 19일 검찰 진술에서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로의 이모 사장에게 2000만원을 주고 당시 서울지하철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시스템의 키값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씨엔씨측은 조씨가 씨엔씨로부터 구입한 단말기시스템 안에 있던 롬(ROM)을 꺼내 이 사장에게 넘겼고 이 사장은 자신의 개인컴퓨터를 이용해 이를 분석한 다음 키값과 알고리즘을 알아낸 뒤 서류로 작성해 이를 조씨에게 다시 넘겨줬다고 덧붙였다. 씨엔씨측은 국민카드가 자사 기술을 해킹해 얻은 직접적인 부당이득의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교통카드를 독점해 신규 발급한 카드가 400여만장에 이르는 만큼 장당 5만원으로 계산할 때 최고 20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측은 “씨엔씨측과 후불교통카드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면서 카드사가 보안을 위해 키값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했는데 당시 씨엔씨가 이유없이 키값을 주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키값을 열어보았는데 이를 기술침해라고 주장한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키값을 제공하라는 국민카드 요구에 따라 지난 99년 10월 당시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후불교통카드와 관련된 키값 소유권이 국민카드에 있음을 문서상으로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해킹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발특 2002/11